

농어촌公 강릉, 가뭄대응 현장 긴급 점검 실시...용수확보 '총력'

✎ 김미성 기자 | ⌚ 승인 2025.07.04 14:11

강수량 부족에 따른 선제적 가뭄 대책 추진



판교 취입보 현장 점검 모습.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강릉

[투어코리아=김미성 기자] 김명일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본부장은 3일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영동지역의 오봉저수지와 사천저수지, 판교취입보 등 가뭄대응 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가뭄 현장에 방문한 김명일 본부장은 용수확보에 힘쓰는 직원을 격려하고, 가뭄 상황 대처 현황을 점검하였다.

강원 강릉 지역은 지난 1월부터 7월 현재까지 누적 강수량이 235mm에 그쳐 평년 471mm 대비 49%에 미달하고 있으며, 특히 오봉저수지의 경우 7월 현재 36.4%의 저수율로 평년 대비 57.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에서는 두산취입보, 판교취입보 등 간이 양수 시설을 설치해 용수로에 직접 물을 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월호평동, 사천진리 간이양수장 가동, 저수율 40% 이하 저수지에 대한 간단 급수(2일 급수, 2일 단수) 등을 시행하고 있다.

기상 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비 소식은 없는 실정으로 농어촌공사 강릉지사에서는 농식품부,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대책 마련에 나섰으며,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강원도, 강릉시 등 지역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용수 확보 대책 및 물 절약 방안, 농업·생활용수 제한급수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명일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장은 “항구적인 가뭄 해갈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추진할 것”이며, “가뭄 상황에 대응하여 총력을 다할 것”이라 말하였다.



김미성 기자